

호모 칸탄스: 영혼 돌봄을 위한 음악의 성경적 기초와 성경적 음악치료의 원리

김 규 보*

국문초록

본 연구는 성경적 상담 운동이 방법론적 매체로서 주로 언어적 접근에 의존해 온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음악이 영혼 돌봄의 매체로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를 논한다. 본고는 먼저 골로새서 3:16에 대한 보완적 주해를 통해 “가르치며 권면하고”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동일한 주동사에 종속된 병렬적 분사구임을 확인함으로써 음악이 성경적 상담의 정당한 방법론적 자원임을 논한다. 이어 구원드라마의 구조 안에서 음악과 영혼 돌봄의 관계를 확인한다. 인간은 노래하는 존재, 곧 호모 칸탄스(*Homo Cantans*)로 창조되었으며, 음악은 하나님의 형상의 전인적 활동이다. 타락은 음악의 방향과 질서를 왜곡시켰으나, 하나님은 죄 가운데 왜곡된 인간 중심의 음악 질서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회복하신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드라마가 완성되는 그 날, 온 피조세계는 우주적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 신학적 기초 위에 본 연구는 성경적 음악치료의 다섯 가지 원리를 제시한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음악을 통한 영혼 돌봄이 세속 음악치료의 기독교적 변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지지하고 말씀이 권면하는 성경적 실천임을 논함으로써 성경적 상담의 방법론적 지평을 확장한다.

주제어: 호모 칸탄스, 성경적 상담, 성경적 음악치료, 매체치료, 영혼 돌봄

* 총신대학교 상담대학원 부교수

I. 여는 글

음악은 인간 존재를 표현하는 근본적인 방식 중 하나다. 역사상 음악이 없는 문화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인류는 다양한 리듬과 선율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며 공동체를 형성해 왔다. 음악은 자기 삶을 돌아보고, 타인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편으로 활용됐다. 성경은 음악을 삶과 신앙의 중요한 요소로 기록한다.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탄식, 회개와 감사의 노래로 가득하고, 바울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엡 5:19)고 권면한다. 더 나아가 성경은 음악이 치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도 보여준다(삼상 16:23).

음악과 관련해서 현대 심리학과 신경과학은 다양한 경험적 연구 성과를 축적해 왔다. 음악은 뇌의 보상회로, 편도체, 전전두엽 등 정서 처리와 기억, 자기 조절에 관여하는 광범위한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킨다(Koelsch, 2014). 음악은 언어 습득의 일종의 비계로 기능하며, 상상력을 촉진하고, 창의적 놀이가 되기도 한다(Brandt et al., 2012). 또한 음악은 도파민 분비와 코르티솔 감소를 통해 행복감을 경험하게 하고, 스트레스 완화에도 기여한다(Salimpoor et al., 2011). 많은 연구가 음악이 생리적 각성, 불안, 우울, 자기 표현, 대인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며, 음악이 정신건강 분야에서 중요한 보조적 치료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Gold et al., 2004; de Witte et al., 2020). 이러한 경험적 연구들은 일반 은혜의 범주로서 음악의 효용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는 영혼 돌봄(*cura animarum*)이라는 본래적 의미의 기독교 치유 사역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전제에 기초한다. 대부분의 현대 음악치료 연구와 실천은 구원 드라마의 실재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고려하지 않는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이론적 토대로 삼는다. 때로는 기독교 상담 내에서 음악을 활용하는 시도조차 분명한 신학적 원리 없이 음악 기법을 차용하는데 머무르곤 한다(Di Giovanni & Ahonen, 2024). 어떤 근거로 음악을 치유 사역에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성경적 논의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음악에 대한 신학적 성찰이 부재했던 것은 아니다. 다양한 연구가 창조 질서와 예배 안에서 지니는 음악의 신학적 의미를 밝혀 왔다(Begbie, 2007; Guthrie, 2011). 특히 Haspelmath-Finatti(2019)는 ‘노래하는 인간,’ 곧 호모 칸탄스(*Homo Cantans*)라는 개념을 통해 노래가 예배적 인간의 본질적인 실천임을 논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음악신학적 논의는 주로 예배와 미학의 차원에 집중되어

있어, 음악을 영혼 돌봄의 매체, 곧 성경적 상담의 방법론적 자원으로 발전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세속 음악치료에서 영성은 주로 성경의 진리와 교리가 아닌 보편적인 초월적 인간 경험으로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Potvin & Argue, 2014).

사실 이 공백은 성경적 상담 운동 내부의 한계이기도 하다. 지난 반세기 동안 성경적 상담 운동은 방법론적 수단으로 언어적 매체에 주로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물론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는 성경적 상담이기에 성경 말씀을 활용하여 언어적으로 내담자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실천은 세속 상담과 구별되는 말씀 중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언어 매체에 주로 집중하는 실천 경향으로 인해 성경이 영혼 돌봄의 매체로 제시하는 또 다른 양태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음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는 학문적 신학이 오랫동안 신앙의 “지성적, 개념적 차원에 몰두”하면서 “신체적, 물질적 삶의 문제”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온 결과라는 지적에 상응한다(Haspelmeth-Finatti, 2019: 191-192).

이에 본 연구는 매체 치료에 대한 성경적 상담 연구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작업으로 음악이 영혼 돌봄의 매체로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창조-타락-구속-완성으로 전개되는 구원드라마를 해석적 틀로 삼아 음악이라는 주제를 성경의 구조 안에서 살펴본다. 곧 구속사의 전개 안에서 음악의 위치와 방향을 규명한 뒤, 그 신학적 기초로부터 성경적 음악치료의 실천 원리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고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경적 상담 운동의 핵심 본문인 골로새서 3:16에 대한 보완적 주해를 통해 음악이 성경적 상담의 적절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논한다. 둘째, 구원드라마 안에서 음악의 위치를 탐색함으로써 음악이 영혼 돌봄과 맺는 관계를 확인한다. 셋째, 이상의 신학적 기초 위에 성경적 음악치료의 다섯 가지 실천적 원리를 제안한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음악 매체를 통한 영혼 돌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지지하고 말씀이 권면하는 성경적 실천이 될 수 있음을 논한다.

II. 펴는 글

1. 음악 매체 활용에 대한 보완적 성경 이해

성경적 상담에서의 언어적 편향은 일정 부분 권면적 상담의 기초가 된 성경 주해의 분절된 이해에서 비롯된다. Jay Adams(1970)는 성경적 상담 운동을 개진하면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누세시아(νουθεσία),’ 곧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함’을 핵심 원리로 삼고 권면적 상담(nouthetic counseling)의 기초를 구축했다.¹⁾ 이 운동은 기독교상담교육재단(CCEF)과 미국성경적상담학회(ACBC)를 양대 축으로 발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권면적 가르침, 고통 중의 위로, 마음의 위상에 대한 진단과 치유라는 상담 전통을 확립하였다(Lambert, 2016; Powlison, 2003).

그러나 ‘누세시아’ 개념의 핵심 본문 중 하나인 골로새서 3:16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성경적 상담의 언어적 편향이 본문 자체의 의미와 다소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골로새서 본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골 3:16)라고 기록한다. 성경적 상담 운동은 이 본문의 전반부인 “가르침과 권면”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반면, 후반부의 음악적 차원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상담의 방법론적 자원으로 충분히 적용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본문의 구문론적 분석은 이런 분절적 오류를 지지하지 않는다. 본문의 주동사는 “거하게 하라(ἐννοικείτω)”이며, 나머지 동사들은 분사구로 주동사에 종속되어 있다. 이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공동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함이 핵심 명령이며, 말씀의 풍성한 거함에서 흘러나오는 동시적 활동이 병렬적인 세 분사구, 곧 “가르치고, 권면하고, 노래하며”로 제시된다는 것이다(O’Brien, 2008: 358-359).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첫째, “가르치고,” 둘째, “권면하고,” 셋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인데, 이 실천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성경적 상담 운동은 이 분사구를 분리해서 적용해 왔다. 가르치고 권면하는 사역이 상담이고, 시와 찬송과 노래는 예배라는 이해이다. 그러나 본문의 더 정확한 의미는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노래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이며, 동시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이다.

이 논증은 에베소서 병행 본문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바울은 성령 충만의 결과로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엡

1) 이 개념은 로마서 15:14 “피차 권하는 자”, 사도행전 20:31 “각 사람을 권하기를”, 골로새서 3:16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14 “규모 없는 자들을 권하라” 등에 나타난다.

5:19)하라고 명령하는데, 여기서 첫 번째 분사절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본문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은 신자들이 모임에서 서로 화답함의 일부이며, 이는 덕을 세우고 가르치며 또한 권면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Lincoln, 2006: 664). 음악으로 서로 화답함이 서로를 향한 영혼 돌봄의 차원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또한, 두 번째 분사절은 “마음으로 주께 노래”할 것을 명하는데, 이는 시와 찬송과 노래, 곧 음악을 통해 마음의 소통과 나눔, 돌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주를 찬미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문에서 복음의 내용(그리스도의 말씀)과 양태(시, 찬송, 노래)는 분절되지 않는다. 양태는 단순히 중립적인 매체 혹은 방법에 그치지 않고, 그 내용을 구현하는 형식이다. 이런 맥락에서 음악을 통한 성경적 영혼 돌봄은 세속 음악치료의 원리와 방법을 단순히 기독교적으로 차용하는 실천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음악은 복음 안에서 바른 방향과 질서로 형성되어야 하며, 그렇게 형성된 음악은 창조 질서가 지지하고 말씀이 권면하는 성경적 영혼 돌봄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

2. 구원드라마 안에서의 음악

음악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취사선택한 증거 구절 몇 개에 의존하지 않는다. 음악은 성경 역사 전반에 걸쳐 사용되었다. 이 절에서는 창조-타락-구속-완성의 플롯으로 구성되는 구원드라마(Vanhoozer, 2005; 김규보, 2025)의 정경적 구조 안에서 음악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1) 창조: 호모 칸탄스

음악은 창조 질서에 내재된 실재이다. 욥기 38:7은 창조의 순간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 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 자체가 음악적 찬양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이 진술은 음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 질서의 한 부분임을 시사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음악적 존재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이 노래와 악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셨다(시 33:2-3, 150:3-6; 고전 10:31; 엡 5:19).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신경생리, 심리관계, 가족체계, 사회문화, 영적 수준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질서를 갖는데(Bavinck, 2011; 김규보, 2025), 음악은 이 모든 차원에서 작용한다. 신경생리적 질서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이

음악에 반응하도록 설계하였다. 음악을 들을 때 뇌의 보상 체계가 활성화되고 신경계의 역동이 일어난다(Koelsch, 2014). 또한 음악은 각성된 신경계를 “안정시키거나 변형적 능력을 줌으로써 특히 비탄과 우울증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이용”된다(김상구, 2009: 141). 심리관계적 질서에서, 음악은 정서 표현과 관계 형성의 핵심 통로가 된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영아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는 행위는 관계적 안정감과 정서적 조율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돌봄의 실천이다. 이런 음악적 교류는 관계 안에서 성장하도록 창조된 인간의 질서(창 2:18)를 반영한다. 가족체계적 질서에서, 음악은 가정 안에서 신앙을 전수하고 세대 간 유대를 형성하는 매체가 된다. 이스라엘의 유월절 식탁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렐(시 113-118)을 노래하며 구원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전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신 6:7)는 명령에 대한 구체적 실천의 한 형태였다. 사회문화적 질서에서, 음악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집단적 기억을 보존한다. 모세의 노래(출 15장)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했으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골 3:16)는 바울의 권면은 교회가 하나의 언약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에 음악이 함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영적 질서에서, 음악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의 도구이다. 시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시 103:1)고 노래하며, 음악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소통 및 예배의 매체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음악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에게 주어진 선물로서 창조주의 아름다움과 질서를 전인적 측면에서 반영하고 표현하는 창조적 양태이다.

Augustine은 음악을 “잘 조율함에 관한 학문”(the science of mensurating well, *scientia bene modulandi*)으로 정의하며, 그 본질이 수에 의해 질서 지어진 운동에 있음을 명시한다(Augustine, 387-391/1947, 1.2). 그는 수적 질서가 창조 전체에 걸쳐 비례와 조화로 구현되어 있음을 논증하면서, 천체의 운행이 지상의 사물들을 “우주의 송가”(carmen universitatis)로 연합시킨다고 기술한다(MacInnis, 2015: 214). 곧 음악의 구조 자체가 창조주의 지혜를 증언하며, 신자가 창조주를 묵상하도록 이끄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Martin Luther는 “신학 다음으로 나는 음악에 최고의 자리와 최대의 영예를 부여”한다고 선언하며, 음악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한다(Luther, 1538/1965: 321-322). 더 나아가 Luther는 음악이 “영혼을 즐겁게 하고, 마귀를 몰아내고, 죄 없는 기쁨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분노, 욕정, 교만을 지나가게” 한다고 강조한다(홍정수, 1990: 29에서 재인용). Calvin(1559/

2020, 3.20.32)도 골로새서 3:16 말씀을 인용하며 “서로 간에 세우는 신령한 노래를 부를 것”을 권면하며, “노래가 하나님과 천사들의 눈에 차게 진중히 조절되어 있다면 거룩한 행위들에 고상함과 은혜가 조화롭게 가미될 것이며 우리의 마음에 기도하고자 하는 참된 열의와 열망이 불붙게” 되고, 이는 “거룩하고 유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처럼 기독교 전통이 강조하는 바, 음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창조 질서의 일부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반영한다(창 1:26-27; 사 43:7). 피조 세계가 소리 없는 노래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면(시 19:1),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선포를 소리 있는 음악과 찬양으로 올려드린다(시 33:1-3, 150:3-6). 인간에게 음악 하는 능력은 언어의 확장이자, 하나님 형상됨을 드러내는 미학적 방식이다. 인간은 음악을 만들고 노래하며 즐거워하는 존재, 곧 호모 칸탄스(*Homo Cantans*)이다.

2) 타락: 왜곡된 음악의 방향과 질서

그러나 인류의 타락은 음악의 방향과 질서를 왜곡시켰다. 죄로 오염된 음악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 우상숭배, 자기 과시를 위한 수단이 되었다.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문화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사랑하는 방식으로 전락시켰다. 음악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도구에서 인간 중심의 우상적 수단으로 변질되었고, 음악의 질서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질서에서 정욕적 흥분으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음악이 죄로 오염되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질서(ordered love)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과 욕망을 향한 무질서한 사랑(dis-ordered love)의 체계로 왜곡되었음을 반영한다.

이는 성경의 여러 사례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스라엘 민족의 금송아지 사건(출 32:4-6)은 음악이 타락한 종교성과 결합하여 우상숭배의 매개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며 요란한 소리로 노래하고 춤추며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다(출 32:6, 18-19). 이 사건에서 음악은 왜곡된 예배와 감각적 방종이 결합된 집단적 열광의 매체였다. 음악은 누구를 향하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영적 성격을 띠 수 있다.

음악의 방향과 질서의 왜곡은 제도적 차원으로 확장되기까지 한다. 느부갓네살 왕은 금 신상을 세운 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여러 가지 악기 소리”가 울릴 때마다 모든 백성에게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할 것을 명령하였다(단 3:5, 7, 10,

14). 여기서 음악은 미적 장식이 아니라 권력이 인간의 예배를 통제하고 양심을 굴복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전례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이처럼 음악은 인간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돕는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죄 아래서 거짓 경배를 정당화하고 집단적 복종을 강화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타락한 질서 아래 음악은 하나님을 망각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들이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도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은 보지 아니”한다고 지적한다(사 5:12). 이는 죄 아래 있는 인간이 음악을 감각적 몰입과 영적 망각을 심화하는데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타락한 질서 가운데 음악은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 하나님이 주신 책임과 사명으로부터 자신을 차단하는 심미적 은폐 장치가 되기도 한다.

이에 Augustine은 음악의 영적 유익을 긍정하면서도, 음악적 쾌락 자체가 목적이 되는 위험을 깊이 경계한다. 그는 음악이 마음 속에 들어와 “상당히 존귀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곡조 자체를 합당한 자리에 두기가 쉽지 않다”고 언급하며, “곡조들에 합당한 정도를 넘어서는 영광을 돌리며”, “육신의 즐거움에 속아 넘어가”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Augustine, 1991, 10.33.49). 즉, 찬송이 “위험한 쾌락”으로 변질될 수도 있고 경건의 “유익한 경험”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Augustine, 1991, 10.33.50). Calvin도 동일한 이유로 “우리의 마음이 말씀의 신령한 뜻에 집중하기보다 우리의 귀가 곡조에 더 쏠리는 일이 없도록 어김없이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고 가르치며, “단지 귀를 채우는 달콤함과 즐거움을 위하여 작곡된 노래는 교회의 엄위에 걸맞지 않고 하나님을 지극히 불쾌”하게 한다고 주장한다(Calvin, 1543/2020, 3.30.32). 이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음악이 그 자체로 가치 중립적이지 않으며, 음악이 담고 있는 내용의 신학적 적합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음악은 곡조나 선율 자체의 즐거움이 아닌, 노래 되는 대상을 향한 경배,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여야 한다는 것이다. 애투스럽게도, 타락의 질서는 하나님 찬양의 도구로 창조된 음악을 자기 유익과 만족, 쾌락을 위한 죄의 통로로 변질시켰다.

3) 구속: 왜곡된 음악 질서의 회복

그러나 하나님은 구속 사역을 통해 왜곡된 음악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되돌리시고, 흩어진 음악의 질서를 하나님의 말씀 아래 회복하신다. 먼저

주목할 점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음악을 여전히 소통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음악 안에 신자의 영혼이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셨다. 이 은혜는 특히 시편에서 드러난다.

시편은 고통과 탄식, 혼란, 상실의 아픔을 노래의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 시인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시 13:1)라는 반복적 호소를 통해 영혼의 고통을 하나님께 직접 아뢰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시 22:1)라고 절규하며 고난의 한복판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 또한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시 42:2) 한다는 고백과 함께 내적 황폐함을 노래하고, 어둠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한다(시 88:1-18). 이러한 시편들은 음악이 단지 기쁨과 찬양의 양식에 머무르지 않고, 고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내는 기도의 언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곧 탄식의 음악은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행위이며, 응답을 기대하는 소망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음악은 신자가 눈물과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는 부르짖음의 양식으로 남아 있을 뿐 아니라, 그 부르짖음 자체가 하나님의 구속을 향한 갈망을 담아내는 그릇이 된다. 하나님을 향한 탄식 노래는 인간의 고통이 절망과 신음으로 끝나지 않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신앙 고백의 형태이다.

이 믿음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구원 드라마 가운데 응답된다.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출 15:1-21)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공동체적 화답이 음악의 형식으로 표출된 첫 번째 성경의 사례다.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인도 아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출 15:1)라고 노래하고, 미리암은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잡고 춤추며 이에 화답하였다(출 15:20-21).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 사건을 산문적 보고가 아니라 음악적 형태로 표현한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경험은 산문의 서술만으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경이로움의 극치다. 음악은 그 압도적 현실 앞에서 인간의 언어를 넘어 감사와 경외를 표현하는 극적인 양식이였다. 이스라엘의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선포하였고, 구속자 되신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가르쳤으며, 구원에 대한 기억을 공동체와 다음 세대에 계승하였다. 이에 Brueggemann (1984: 158)은 시편의 장르를 “하나님의 인격적 성품과 그분의 창조와 해방 행위의 본질”에 대한 공동체적 송영 “으로 정의함으로써 찬송시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가르침이자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선포임을 명시한다. 그에 따르면 감사사와 선포적 찬송시는 구원, 해방, 치유의 결정적 사건을 전달하는 음악적

장르이며(Brueggemann, 1984: 20-21), 시편의 본래적 기능 중 하나는 그러한 구원의 기억을 공동체 안에서 살아 있게 유지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Brueggemann, 1984: 127-128). 따라서 시편을 노래하는 자는 단지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의 구원 기억 전체에 참여(participate in)하고 그것을 다시 살아내는(relives)” 자가 된다(Brueggemann, 1984: 128). 이처럼 구원 역사 속에서 음악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찬양과 선포의 매체이자, 공동체의 정체성과 삶의 질서를 형성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또한 음악은 영적 고통을 다스리는 치유의 통로로도 사용되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괴롭게 할 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사울이 상쾌하여 낮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 갔다(삼상 16:23). 본문은 사울의 고통을 단순한 심리적 불안이나 정서적 고통으로 설명하지 않고, “악령”이라는 영적 실재와 관련된 것으로 묘사한다. 이때 다윗의 음악은 사울의 내적 고통을 완화하고 악한 영의 괴롭힘을 그치게 하는 치유의 매체로 사용된다.

그러나 성경은 치유의 근원이 음악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 있음을 분명히 한다. 본문은 다윗을 소개하면서 그가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별이 있는 준수한 자”일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 자임을 증거한다(삼상 16:18). 이 본문을 박윤선(1978: 96)은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물러간 이유는 그 때에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 감화를 수금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Bergen(1996: 184)도 다윗을 통한 치유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고 강조한다. 사울에게 임한 회복이 다윗의 음악적 재능이나 음악 자체의 치료적 효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은혜라는 것이다. 이러한 성경의 진술은 음악 자체에 독립적이고 내재적인 치료력을 부여하는 현대 음악치료적 전제와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성경은 치유를 음악의 기술이나 감각적 효과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임재 아래 둔다.

이후 다윗의 음악 사역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공동체적 차원으로 연결된다. 역대상 25:1-7에서 다윗은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을 구별하여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가지고 예언하는 직무”를 맡겼다(대상 25:1). 본문에서 음악 사역이 “예언”으로 묘사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예언”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해석상 논의가 있으나, 어떤 해석을 따르든 동일한 함의는 음악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적용하는 사역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MacArthur, 2006; Selman,

1994). 이는 음악이 말씀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 구조적으로 설계된 매체였음을 보여준다.

특히 시편의 음악은 공동체적 성격과 분리될 수 없다.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는 것과 말씀을 공동체가 함께 노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적 역동을 일으킨다. 시편 표제에 등장하는 “인도자를 따라”라는 지시는 이 텍스트들이 개인적 독서와 문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노래로 함께 불리도록 의도되었음을 시사한다(Bullock, 2001: 29). 시편은 공동체 안에서 인간 영혼의 거의 모든 상태, 곧 찬양(시 145-150), 탄원(시 13, 22, 42-43, 88), 감사(시 30, 34), 지혜(시 1, 37, 73), 회개(시 51), 신뢰(시 23, 27, 46)를 다룬다(deClaissé-Walford et al., 2014). 신앙 공동체는 시편을 함께 노래함으로써 자신들의 기쁨과 슬픔, 절망, 신뢰, 감사, 회개를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 공동체가 시편을 함께 부를 때, 산문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혼의 깊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올려진다. 시편은 고통의 순간에 “이미 알고 있던 옛 세계의 해체이자,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대한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확신의 무너짐”을 정직하게 드러낸다(Brueggemann, 1984: 20). 특히 탄식 시편은 고통과 하나님의 선하심 사이에서 “상처 입은 마음의 정직한 부르짖음”(Vroegop, 2019: 26)을 표출함으로써 공동체가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지 않게 한다. 이렇게 광범위한 삶의 영역 속에서 정직한 심령이 공동체의 노래로 표출될 때, 신앙 공동체는 함께 자신의 기쁨과 슬픔, 절망과 신뢰, 감사와 회개를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다. 산문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혼의 깊은 내면이 음악을 통해 진솔하게 올려질 때, 각 성도는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나 기쁨을 공동체의 노래 안에서 마주하고, 미처 언어화하지 못한 자기 영혼의 정직한 모습이 이미 공동체의 노래 속에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동시에 공동체는 각 지체의 탄식과 아픔을 함께 노래함으로써 서로의 짐을 나누고 서로의 기쁨에 동참하게 한다. 이렇게 함께 노래되는 시편의 말씀은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체화시키며, 개인을 넘어 신앙 공동체가 치유와 회복이 경험되는 공간이 되게 한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받은 성도의 노래는 환난과 고난이 잠재울 수 없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조차 “발이 차꼬에 묶인”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찬미”하였다(행 16:24-25). 인간적으로 찬양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노래하였다. 이 찬양은 고통을 영적으로 환원하는 종교적 회피도, 단순한 정서적 자기 위안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구속의

실재에 기초한 신앙 고백이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바 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차꼬와 옥문이 결코 결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세상의 압제와 고난이 빼앗을 수 없는 이 은혜는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할 참된 이유다. Luther(1520/2016: 15)는 질병이나 결박, 굶주림, 목마름이나 부유함과 강건함 등 어떤 외적인 것도 영혼의 자유와 속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한다. 곧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외적 환경이나 요인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이미 확정된 영적 실재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유는 신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초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넘어, 고난 중에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찬양의 근거가 됨을 추가한다. Calvin(1559/2020, 3.8.11)은 “빈곤, 혹은 추방, 혹은 감옥, 혹은 모욕, 혹은 질병, 혹은 유기, 혹은 이것들과 유사한 어떤 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가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과, 그는 가장 의로운 질서 가운데서가 아니면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즉 고난과 아픔의 현실 가운데서도 모든 삶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기에 주어진 현실과 무관하게 신자는 고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Calvin, 1559/2020, 3.8.11). 바울과 실라는 루터가 강조한 것처럼 감옥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경험하고 있기에, 또한 Calvin이 강조한 것처럼 그 고난조차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에 주를 향한 찬양을 멈출 수 없었던 것이다.

더 나아가 사도행전 본문은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죄수들이 듣더라”(행 16:25)라고 기록함으로써 고난 가운데 부른 이 노래가 복음의 증언이 됨을 보여준다. 이어지는 간수의 회심 이야기(행 16:26-34)는 찬양이 단지 개인적 경건의 행위를 넘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가 됨을 나타낸다. Calvin이 강조한 대로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고난 넘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라면, 역으로 고난 중에 인내함으로 울려 퍼지는 찬양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하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 즉 구속받은 성도가 부르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 좌우되는 정서적 반응이 아니라, 복음에 근거한 믿음의 고백이자 영적 실천이며, 그리스도의 구원이 세상 가운데 들려지는 증언이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을 향한 음악은 “살아 있는 복음의 소리(viva voce evangelii)”다 (Swarbrick, 2017: 236).

4) 완성: 종말론적 찬양을 향하여

마지막 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새 노래”를 부른다(시 40:3, 96:1; 계 5:9). 새 노래는 단순히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곡조나 가사를 의미하지 않는다. 새 노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존재로서 변화된 심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온전한 찬양이다. 죄의 지배 아래 왜곡되었던 노래의 방향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되돌려지고, 무질서한 사랑 가운데 흠여졌던 음악의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새롭게 회복된다. 성경은 회복된 노래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계 5:9-10). 이 노래는 어린 양의 구속 사역, 곧 죽음 당하심, 피로 사심, 나라와 제사장으로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다. 이 찬양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계 15:3)가 함께 불려지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으로 예표되었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됨을 보여준다(Bauckham, 1993: 70-72). 시편에서 예고되었고(시 40:3, 96:1, 98:1, 149:1),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새 노래(사 42:10; 계 5:9-10)가 마침내 완성되는 것이다.

이 찬양에는 모든 피조세계가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날에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계 5:8)과 “수천 수만”의 천사가 함께 합류하여 “큰 음성으로” 어린 양의 존귀함을 노래하고(계 5:11-12),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계 5:13)이 더불어 찬양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이 찬양에 “허다한 무리의 음성,” “많은 물 소리,” “큰 뇌성”이 함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라고 외친다(계 19:6). 이제 이 노래는 더 이상 개인의 고백이나 한 공동체의 찬양이 아니다. 이는 온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완성된 통치 아래 하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주적 합창, 곧 온 창조 세계의 예배다. 이 노래는 구원의 완성에 대한 선포이며,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우주적 찬양이다. 호모 칸탄스로서 인간은 이 우주적 예배 가운데 존재의 텔로스(*telos*),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긴장 속에 살고 있다. 이 긴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음악은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우주적 예배를 선포하며, 그 소망 가운데 현재를 살아가게 한다. 이 소망 안에서 성도는 타락한 세상의 고통과 탄식을 뛰어넘는 하늘의 노래를 외칠 수 있다. 이에

시인은 노래한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 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시 150:3-5).

3. 성경적 음악치료의 원리

살펴본바, 하나님은 창조의 시작부터 구원드라마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음악을 만들고 음미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찬양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것을 주권적 섭리 아래 두셨다. 바른 방향과 질서 가운데 형성된 음악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런 음악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하고 전 존재로 그분을 찬양하게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떠나, 세속 음악치료를 기독교 문화에 단순히 차용하는 실천은 결코 성경적 음악치료가 될 수 없다. 성경적 음악치료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구원드라마의 구조 안에서 음악을 영혼 돌봄의 매체로 사용하는 성경적 상담의 한 양태이다. 이 실천은 치유의 근원을 음악 자체가 아닌 음악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 목적을 심리적 안녕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의 방향 전환과 그리스도 안에서 전인적 회복에 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매체로서 음악을 활용할 수 있는가? 앞서 논의한 신학적 기초를 바탕으로 이 장에서는 성경적 음악치료가 지향해야 할 다섯 가지 실천적 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1) 하나님 정향의 원리

성경적 음악치료의 제1원리는 “하나님 정향(God-oriented)”이다. 이 원리는 창조-타락-구속-완성의 구원드라마 가운데 전개되는 음악의 방향 전환으로부터 비롯된다. 타락이 음악의 방향을 하나님에게서 피조물로 돌렸다면, 구속은 그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린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지적한 바, 죄의 본질이 사랑의 대상과 방향이 전도된 것이라면, 치유는 그 사랑의 질서가 하나님께로 재정향되는 것이다. 시편의 노래는 하나님 정향 원리를 담고 있다. Brueggemann(1984)에 의하면, 시편은 크게 정향(orientation), 탈정향(disorientation), 새 정향(new orientation)으로 특징지어진다. 인생의 안녕과 기쁨, 축복, 하나님을 향한 신뢰 등을 노래하는 “정향의 시편(psalms of orientation)”은 하나님의 뜻 아래 질서 있는 삶의 현실을 노래하고, 상처와 소외, 고난, 분노 가운데 삶의 안녕과 질서가 무너진 상태를

그려내는 “탈정향의 시편(psalms of disorientation)”은 그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개입을 통해 모든 것이 새롭게 됨을 보여주는 “새 정향의 시편(psalms of new orientation)”은 회복을 노래한다(Brueggemann, 1984: 19). 인간 영혼은 이 세 자리 중 어느 하나에 머무르거나 한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이행하는 과정 가운데 있으며, 시편의 모든 노래는 궁극적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을 향해 새롭게 정향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구원 드라마 안에서 살펴본 음악의 용례들과 시편의 정향 도식이 함께 가리키는 바, 성경적 관점에서 음악의 쟁점은 기법이나 장르가 아니라 방향이다. 동일한 음악적 행위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우상을 향할 수 있다. 따라서 성경적 음악치료에서 상담자가 일차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음악 기법의 효과성이 아니라, 그 음악이 내담자의 마음을 궁극적으로 어디로 향하게 하는가이다.

이 원리에 따라 성경적 음악치료는 내담자가 자신의 고통, 두려움, 분노, 상실 등의 경험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도록 도와야 한다. 이는 음악 경험 가운데 내담자가 자기 정서를 자각하고, 그 경험의 궁극적 청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게 함이다. 시편 기자가 보여 주었듯이, 삶의 탄식과 절규를 하나님께 노래할 때, 그 노래는 하나님의 들으심과 위로, 치유의 역사를 마주하게 된다. 반면,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자기 내면으로만 침잠하는 음악 경험은 정서적 위안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야기함으로써 참된 치유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따라서 하나님 정향의 원리를 따르는 성경적 음악치료는 내담자가 고립적 자기 성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 마음을 다루게 함으로써 예배적 삶을 회복해 가는 방향을 지향한다.

그러므로 성경적 음악치료의 궁극적 목적은 심리적 안녕의 증진이 아니라, 음악을 통하여 내담자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돕는 데 있다. 음악을 통해 경험되는 정서적 안정, 심리적 이완, 스트레스의 완화 등은 음악이 하나님을 향할 때 나타나는 은혜의 열매이지, 그 자체가 성경적 음악치료의 목적이 아니다. 성경적 음악치료의 모든 실천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할 때 비로소 본질적 목적을 성취한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

2) 말씀 담지의 원리

하나님 정향 음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다. 이미 논증한 바, 성경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전제한 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골 3:16)를 권면함은 음악의 내용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담아야 함을 가르쳐 준다. 음악은 그 자체로 자율적 치료 매체가 아니다. 음악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지할 때, 그 음악은 비로소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흘려보내는 치유의 통로가 된다. 치유의 근원은 음악 경험 자체가 아니라, 음악이 담아내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 이 원리는 성경적 음악치료에서 사용되는 모든 음악이 본질적으로 성경의 진리와 일치해야 함을 요구한다.

종교개혁기의 시편송 전통(Genevan Psalter, 1562)이 보여주듯, 성경적 진리를 음악적으로 재구성하는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Calvin은 시편을 운문으로 번역하고, 선율을 작곡하게 하여,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노래할 수 있도록 했다(Garside, 1951). 이 전통은 성경의 내용을 음악적 형식 안에 담되, 음악이 말씀에 봉사하도록 하는 원리를 구현한 것이다. Calvin은 음악의 가치는 음악이 담고 있는 가사의 신학적 진정성에 종속된다고 보았다. 그는 “우리는 다윗의 시편들, 곧 성령께서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지으신 그 시편들보다 더 좋은 노래, 더 합당한 노래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인간만의 고유한 선물은 자신이 부르는 것을 알면서 노래하는 데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Garside, 1951: 571). 핵심은 음악의 내용이 성령이 조명 아래 그리스도의 말씀을 뿌리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Begbie(2000)에 따르면, 음악은 성경의 진리를 단순히 명제적으로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간적 전개와 질서 있는 구조 속에서 그 진리를 새롭게 지각하고 체험하게 한다. 음악은 “세계를 지각하는 한 방식”이며, “신학적 지혜를 실연함으로써 신학을 진전”시키고, “세계의 시간성에 참여하는 독특한 한 형식”이다(Begbie, 2000: 4-7). 음악은 단순히 가사를 음계로 꾸며주는 미학적 장치가 아니라, 그 의미를 인지적으로 깨닫게 하고, 정서적으로 느끼고, 그에 담긴 지혜를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진리를 체화하도록 돕는 도구가 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삶의 노래가 될 때, 그 말씀은 인지적 지식을 넘어, 정서적으로 내면화되고, 삶의 실천으로 경험되는 지혜가 될 수 있다. 이에 시편은 노래한다. “주의 율례들은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시 119:54).

3) 전인성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한 음악은 전인에 영향을 준다. 전인성의 원리는 호모 칸탄스로 창조된 인간의 다차원적 질서로부터 도출된다. 언어적 상담은 인지적 이해와

의지적 결단을 촉진하는 데 강점이 있다. 그러나 상담 현장에서 내담자의 모든 문제가 인지적 접근만으로 충분히 다루지는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외상 경험은 뇌의 언어 처리 영역의 비활성화와 연관되어 언어 기억이 아닌 감각 기억 혹은 정서 기억의 형태로 저장되는데(Van der Kolk, 2014: 43-44, 70), 이런 경우 언어적 접근만으로는 충분히 다루기 어렵다. 발달 장애나 인지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언어적 소통에 제한이 있다. 음악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보완적 도구가 될 수 있다.

인간의 의미 생성은 추상적 명제 처리에 국한되지 않고 신체적 경험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의미는 “단지 개념과 명제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지, 감각운동 도식, 느낌, 질, 정서에까지 깊이 닿아 있다”(Johnson, 2007: 12). Thaut(2005: 2-3)에 의하면, 음악은 언어와 달리 “명시적 의미론적·지시적 의미를 결여한” 채 “체화된(embodied)” 의미 체계를 이루며, “음악의 신경해부학적 기반은 신경학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음악은 “생리적 각성의 적절한 조절을 위한 결정적 입력(critical input)”으로서 “정서적 각성 회로(emotional arousal circuitry)와 연결된 정서적 구성요소들”에 접근한다(Thaut, 2005: 33, 35). 따라서 노래할 때 호흡의 조절, 성대의 진동, 리듬에 따른 신체적 움직임은 노래의 의미를 정서적으로 전달하며 체험적 차원으로 각인시킬 수 있다. 곧 외상 경험이나 발달 혹은 인지적 제약으로 언어적 접근이 충분치 않은 영역에서, 음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화된 의미의 양식으로 전달함으로써 언어가 도달하지 못하는 정서적, 신체적 차원에까지 진리가 닿게 한다. 또한 음악의 정서적 각성 회로 접근은 말씀이 단지 명제적 동의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정서적으로 체험되고 신체적으로 각인되도록 함으로써, 인지, 정서, 신체가 분리되지 않은 채 전인적 수용을 가능케 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담지된 음악 경험을 통해 참여자들은 진리를 노래하고 음미하며, 정서적으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몸을 움직임으로써 그 은혜를 살아내며, 서로 화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한 성경적 음악은 언어적 매체에 주로 의존해 온 성경적 상담의 방법론적 지평을 확장하는 보완적 양식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전인적 질서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는(골 3:16) 한 형태가 될 수 있다.

4) 종말론적 긴장의 원리: 탄식으로부터 소망으로

하나님을 향한 음악은 인간 삶의 긍정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현실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수단이어야 한다.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놓인 인간의

종말론적 실존은 구원드라마를 살아가는 인간 존재의 노래가 죄 아래서의 탄식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연결되는 신앙적 침노를 필연적으로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시편은 찬양(시 145-150)뿐 아니라 탄식(시 13, 22, 88), 회개(시 51), 감사(시 30, 34), 저주(시 109, 137)까지 포괄함으로써, 인간의 전 존재와 전 경험이 하나님 앞에서 노래와 기도가 될 수 있음을 드러낸다. 즉, 시편의 음악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어떤 경험도 배제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모든 경험을 신앙의 언어로 변화시킴으로써 타락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역사를 소망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실천적 함의를 지닌다. 첫째, 성경적 음악치료는 내담자의 고통을 성급히 해소하려 하거나, 그것을 단순하게 밝고 긍정적인 찬양으로 덮어버리지 않아야 한다. 탄식은 찬양의 부재나 결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또 다른 언어이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신앙을 전제하기 때문이다(김규보, 2025). Vroegop(2019)은 “하나님의 긍휼과 구속, 그리고 주권에 대한 믿음은 탄식을 낳는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과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확신이 없다면, 고통이 우리의 삶을 침범할 때 탄식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말하며, “우는 것은 인간적인 일에 그치지만, 탄식함은 그리스도인적인 실천”이라고 강조한다(Vroegop, 2019: 26). 따라서 성경적 음악치료는 내담자가 자신의 슬픔, 분노, 상실,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노래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성경적 음악치료는 내담자가 탄식에 머물지 않고 소망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해야 한다. 탄식은 “고통 가운데 기도”이며, “고통과 약속 사이의 전환”인 동시에 “비통함에서 소망으로 가는 길”이다(Vroegop, 2019: 29). 따라서 시편의 많은 탄식시가 고통의 토로에서 출발하여 신앙 고백과 찬양으로 전환되는 것처럼(e.g., 시 13:5-6, 22:22-31), 성경적 음악치료 역시 내담자가 고통에서 소망으로, 탄식에서 찬양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전인적으로 경험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원리 안에서 내담자는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억압하지 않으면서도 절망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통해 자기 영혼의 타락한 상태를 더욱 깊이 인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는 있는 그대로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성도된 자신을 붙들고 계시다는 소망을 얻을 수 있다.

5) 공동체적 돌봄의 원리

성경적 음악치료는 치유를 단지 개인의 내적 회복 과정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인간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된 사회적 존재이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묘사하며,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라고 말한다(고전 12:26). 한 사람의 아픔은 공동체 전체의 아픔이며, 한 사람의 위로는 공동체 전체의 위로이다. 따라서 인간의 상처는 개인 내부의 문제로만 환원될 수 없으며, 회복 역시 공동체적 차원을 필연적으로 포함한다. 그렇다면, 성경적 음악치료도 개인적 정서 표현과 자기 조절의 수준에 머무를 수 없다. 성경적 음악치료는 상처 입은 한 사람을 공동체의 품 안으로 다시 연결하고, 공동체가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영적 돌봄의 실천이 되어야 한다.

시편은 개인의 노래인 동시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불리고 응답하던 노래였다. 따라서 시편을 통해서 한 사람의 고통이 공동체의 노래가 되고, 공동체의 노래는 개인의 믿음을 불드는 통로가 된다. 누군가의 찬양은 다른 이의 믿음을 일으키고, 누군가의 탄식은 공동체의 중보를 불러일으키며, 누군가의 감사는 공동체의 소망을 새롭게 한다. Ansdellf(2014: 320)에 따르면, 음악은 “인격, 정체성, 관계, 공동체, 초월”과 관련된 인간의 근본적 필요에 응답한다. 함께하는 음악 경험은 개인의 심리 내적 변화뿐 아니라 사회적 연결과 소속감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음악은 공동체적 돌봄의 언어이며, 말씀과 사랑이 공동체 안에서 실천되는 한 형태로서 기능한다.

오늘날 음악은 종종 개인의 기분 전환, 감정 조절, 자기 만족의 도구로 소비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현실과 대조적으로, 성경적 음악 경험은 음악을 자기중심적 위안의 수단으로 축소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경적 음악 경험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책임지고 품으며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 가는 공동체적 은혜의 수단이다. 음악을 통한 돌봄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리는 실천인 동시에, 그 마음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서로를 섬기며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가는 실천이다. 이 원리 안에서 내담자는 더 이상 상처와 아픔을 홀로 견디는 존재로 남아있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노래하는 존재로 회복된다. 이런 맥락에서 성경적 음악치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 형태이다.

그러므로 성경적 음악치료의 실천은 개인 상담실에 국한되지 않는다. 성경적 음악치료는 교회 공동체의 예배와 교제, 소그룹 사역 안에서도 실천되어야 한다.

공동체가 함께 서로의 아픔에 탄식의 노래로 동참하며, 구원의 은혜를 찬양으로 함께 고백할 때, 그 자체가 성경이 명하는 음악적 영혼 돌봄의 실천이 된다. 그 가운데 각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공동체적 돌봄을 주고받으며, 혼자서는 부를 수 없었던 노래를 공동체와 함께 부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나아가게 될 것이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엡 5:19-20).

III. 닫는 글

이 연구는 성경적 상담이 그동안 주로 언어적 접근에 의존해 온 한계를 지적하며, 음악이 성경적 영혼 돌봄의 정당한 매체가 될 수 있음을 논하였다. 이를 위해 골로새서 3:16의 주해를 통해 “가르치며 권면하라”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동일한 명령에 종속된 병렬 구조임을 확인하고, 음악 역시 말씀 사역의 한 형식이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창조-타락-구속-완성의 구원드라마 안에서 음악의 의미를 고찰한 후, 이를 기초로 성경적 음악치료의 다섯 가지 원리를 제시하였다.

다섯 원리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하나님 정향의 원리’는 음악의 궁극적 목적과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나머지 네 원리를 규율하는 제일원리이며, ‘말씀 담지의 원리’는 정향된 음악이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곧 음악의 내용을 규정한다. 음악은 하나님을 향하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아야 한다. ‘전인성의 원리’는 말씀을 담은 음악이 인지를 넘어 정서와 신체에 이르기까지 전인에 미치는 작용 범위를 보여주며, ‘종말론적 긴장의 원리’는 그 전인적 경험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곧 영혼 돌봄의 시간성을 드러낸다. 음악은 탄식에서 소망으로, 고통에서 찬양으로 나아가는 여정에 동행한다. ‘공동체적 돌봄의 원리’는 그 여정이 이루어지는 돌봄의 현장을 드러낸다. 결과적으로 성경적 음악치료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담아, 전인이, 탄식에서 소망으로, 공동체와 함께 경험되는 음악 실천을 구현해야 한다.

본 연구의 학문적 기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이 영혼돌봄의 방법론적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함으로써 언어 중심에 머물던 성경적 상담의 방법론적 지평을 확장하였다. 둘째, 구원드라마 안에서 음악과 영혼 돌봄의 관계를 탐색함으로써

치료적 도구로서의 음악 활용에 대한 성경적 기초를 제시하였다. 셋째, 이 기초 위에 성경적 음악치료의 다섯 가지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세속적 접근과 구별되는 성경적 음악치료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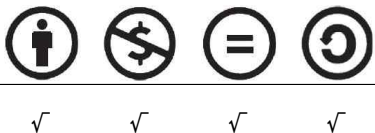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원리들을 실제 상담 장면에서 적용하는 구체적 모델과 경험적 검증까지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성경적 원리에 기초한 음악치료 모델을 개발하고 그 실제 적용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음악을 영혼 돌봄의 매체로 자리매김하는 신학적 기초 작업으로서, 교회의 예배와 소그룹, 심방, 상담 현장에서 음악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출발점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성경은 복음 사역을 언어에만 한정하지 않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통해서도 수행하도록 가르친다. 이런 점에서 음악은 성경적 상담 안에서 책임 있게 탐구되고 활용되어야 할 영혼 돌봄의 매체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존재이다. 또한 구속받은 자의 노래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탄식과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찬양을 미리 맛보게 한다. 하나님 정향의 음악을 통해 우리의 전인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확정되고, 말씀을 담지한 음악 경험을 통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온 교회와 나라와 민족,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찬미되는 우주적 합창이 속히 울려 퍼지기를 소망한다. *Soli Deo Gloria per musicam!*

•논문 투고일: 2026년 05월 29일

•논문 수정일: 2026년 07월 02일

•게재 확정일: 2026년 07월 10일



【참고문헌】

- 김규보 (2025). **성경적 상담학 개론(상)**. 생명의 말씀사.
- 김상구 (2009). 예배에서 음악의 역할에 관한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19, 122-147.
- 박윤선 (1978). **성경주석: 사무엘서 열왕기 역대기**. 영음사.
- 홍정수 (1990). **교회음악개론(2판)**.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 Adams, J. E. (1970). *Competent to counsel: Introduction to nouthetic counseling*. Baker Book House.
- Ansdell, G. (2014). *How music helps in music therapy and everyday life*. Ashgate.
- Augustine. (1947). On music [*De musical*] (R. C. Taliaferro, Trans.). In *The Fathers of the Church: Vol. 4. Writings of Saint Augustine* (pp. 153-379).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Original work written 387-391).
- Augustine. (1958). *On Christian doctrine* (D. W. Robertson Jr., Trans.). Bobbs-Merrill. (Original work published 396-397).
- Augustine. (1972). *City of God* (H. Bettenson, Trans.). Penguin Books. (Original work written ca. 426).
- Augustine. (1991). *Confessions* (H. Chadwick, Trans.). Oxford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397-400).
- Bauckham, R. (1993). *The theology of the Book of Revel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vinck, H. (2011). *Reformed dogmatics: Abridged in one volume* (J. Bolt, Ed.). Baker Academic.
- Begbie, J. S. (2000). *Theology, music and tim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gbie, J. S. (2007). *Resounding truth: Christian wisdom in the world of music*. Baker Academic.
- Bergen, R. D. (1996). *1, 2 Samuel* (*The New American Commentary*, Vol. 7). Broadman & Holman.
- Brandt A., Gebrian, M., & Slevc. L. R. (2012). Music and early language acquisition. *Frontiers in Psychology*, 3, Article 327. <https://doi.org>

/10.3389/fpsyg.2012.00327

- Brueggemann, W. (1984). *The message of the Psalms: A theological commentary*. Augsburg Publishing House.
- Bullock, C. H. (2001). *Encountering the Book of Psalms: A literary and theological introduction*. Baker Academic.
- Calvin, J. (2001). Psalms and the Psalter. In E. A. McKee (Ed. & Trans.), *John Calvin: Writings on pastoral piety* (pp. 91-97). Paulist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543).
- Calvin, J. (2020). **기독교 강요** (문병호 역,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생명의말씀사. (원전 1559 출판).
- deClaissé-Walford, N. L., Jacobson, R. A., & Tanner, B. (2014). *The Book of Psalms*. Eerdmans.
- de Witte, M., Spruit, A., van Hooren, S., Moonen, X., & Stams, G.-J. (2020). Effects of music interventions on stress-related outcomes: A systematic review and two meta-analyses. *Health Psychology Review*, 14(2), 294-324. <https://doi.org/10.1080/17437199.2019.1627897>
- Di Giovanni, V., & Ahonen, H. (2024). Faith and practice: How religious beliefs affect a music therapist's clinical identity and practice. *Journal of Pastoral Care & Counseling*. Advance online publication. <https://doi.org/10.1177/15423050241291562>
- Garside, C., Jr. (1951). Calvin's preface to the Psalter: A re-appraisal. *The Musical Quarterly*, 37, 566-577.
- Gold, C., Voracek, M., & Wigram, T. (2004). Effects of music therap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psychopathology: A meta-analysi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5(6), 1054-1063. <https://doi.org/10.1111/j.1469-7610.2004.t01-1-00298.x>
- Haspelmath-Finatti, D. (2019). Homo cantans: On the logic of liturgical singing. *NTT Journal for Theology and the Study of Religion*, 73(3), 191-203. <https://doi.org/10.5117/NTT2019.3.004.HASP>
- Johnson, M. (2007). *The meaning of the body: Aesthetics of human understanding*.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lein, R. W. (2004). **WBC 성경주석: 사무엘상** (김경열 역, *Word biblical commentary 10: 1 Samuel*). 솔로몬. (원전 1983 출판).
- Koelsch, S. (2014). Brain correlates of music-evoked emotions. *Nature Reviews Neuroscience*, 15(3), 170-180. <https://doi.org/10.1038/nrn3666>
- Lambert, H. (2016). *A theology of biblical counseling: The doctrinal foundations of counseling ministry*. Zondervan.
- Lincoln, A. T. (2006). **WBC 성경주석: 에베소서** (배용덕 역, *Word Biblical Commentary 42: Ephesians*). 솔로몬. (원전 1990 출판).
- Luther, M. (2016). **그리스도인의 자유** (추인해 역, *Von der Freiheit eines Christenmenschen*). 동서문화사. (원전 1520 출판).
- Luther, M. (1965). Preface to Georg Rhau's *Symphoniae iucundae*. In U. S. Leupold (Ed.), *Luther's works: Vol. 53. Liturgy and hymns* (pp. 321-324). Fortress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538).
- MacArthur, J. (2006). *The MacArthur study bible: New King James Version*. Thomas Nelson. (Original work published 1997).
- MacInnis, J. (2015). Augustine's *De musica* in the 21st century music classroom. *Religions*, 6(1), 211-220. <https://doi.org/10.3390/rel6010211>
- O'Brien, P. T. (2008). **WBC 성경주석 44: 골로새서, 빌레몬서** (정일오 역, *Word biblical commentary 44: Colossians, Philemon*). 솔로몬. (원전 1982 출판).
- Old, H. O. (2002). *Worship: Reformed according to Scripture* (Rev. ed.).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Potvin, N., & Argue, J. (2014). Theoretical considerations of spirit and spirituality in music therapy. *Music Therapy Perspectives*, 32(2), 118-128.
- Powlison, D. (2003). *Seeing with new eyes: Counseling and the human condition through the lens of Scripture*. P&R Publishing.
- Salimpoor, V. N., Benovoy, M., Larcher, K., Dagher, A., & Zatorre, R. J. (2011). Anatomically distinct dopamine release during anticipation and experience of peak emotion to music. *Nature Neuroscience*,

- 14(2), 257-262. <https://doi.org/10.1038/nn.2726>
- Selman, M. J. (1994). *1 Chronicles: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Vol. 10). InterVarsity Press.
- Swarbrick, J. (2017). Martin Luther: Music and mission. *Holiness: The journal of Wesley House Cambridge*, 3(2), 235-256. <https://doi.org/10.2478/holiness-2017-0008>
- Thaut, M. H. (2005). *Rhythm, music, and the brain: Scientific foundations and clinical applications*. Routledge.
- Van der Kolk, B. (2014). *The body keeps the score: Brain, mind, and body in the healing of trauma*. Viking.
- Vanhoozer, K. J. (2005). *The drama of doctrine: A canonical-linguistic approach to Christian theolog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Vroegop, M. (2019). *Dark clouds, deep mercy: Discovering the grace of lament*. Crossway.

[Abstract]**Homo Cantans: Biblical Foundations for the Use of Music as
a Medium and Principles of Biblical Music Therapy****Kim, Kyu Bo***

This paper argues that music can function as a legitimate medium for soul care within biblical counseling. For the past half century, the biblical counseling movement has relied almost exclusively on verbal media. A supplementary exegesis of Colossians 3:16—a foundational text for nouthetic counseling—reveals that “teaching and admonishing” and “psalms, hymns, and spiritual songs” are parallel participial clauses subordinate to the imperative “let the word of Christ dwell in you richly,” demonstrating that the latter has been left largely unexplored as a methodological resource. Building on this exegetical foundation, the study traces the relationship between music and soul care within the Theodrama. In creation, the human being is *homo cantans*—a singing creature whose music-making is a holistic activity of the *imago Dei*. The fall distorted music’s direction and order, yet redemption restores it through Moses’ song, David’s harp, the Psalms, and the “new song” in Christ. In consummation, music reaches its ultimate *telos* as cosmic praise before the Lamb. On this theological basis, five principles of biblical music therapy are proposed: God-orientation, Word-bearing, holistic engagement, the continuity of lament and hope, and communal care. This study expands the methodological horizon of biblical counseling by demonstrating that music in soul care is not a Christianized adaptation of secular music therapy but a practice grounded in creation order and commanded by Scripture.

Key words: homo cantans, biblical counseling, biblical music therapy,
creative arts therapy, soul care

* Chongshi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 Assistant Professor